

# 박주선 “온통 취업걱정 눈시울이...” 박지원 “못살겠다 같아보자 재등장”

## ■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설 민심

설 연휴 동안 지역구와 고향 등을 다녀온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은 ▲ 청년 실업 ▲ 세종시 수중에 따른 지역 피해 ▲ 여권에 대한 실망 ▲ 민주당의 미래 등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전해왔다. 설 민심을 전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졸백 세대”라는 신조어가 난무하고 있다. 졸업하자마자 백수로 전락한다는 얘기다.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미안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양치기 소년에 비유하는 등 존경과 신뢰가 오래 전에 사라졌더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어떤 대학생을 만났더니 지금 대학생을 엔지세대, 대오족이라고 풍자하는 것을 들었다. (대학을 4년 다녀도 졸업 못하는) 노 그래주에이션, 즉 대학 5학년 세대란 뜻이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니 ‘대통령은 강도 당할 재산이라도 있는 모양이지만 우리는 끼니도 어렵다. 왜 여

당과 대통령이 싸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며 최근 박근혜 전 대표와 청와대 간의 소위 ‘강도론’ 공방을 비교했다.

같은 당의 박지원 의원은 “못 살겠다 같아보자”는 옛날 구호가 다시 나오더라”며 “지역 기업들이 세종시로 가는 것 아니냐고”는 우려 섞인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역시 같은 당의 강기정 의원은 “정동영 의원에 들어왔으니 손학규 전 대표도 복귀해 당내 인물을 키워야 한다고 하더라”며 민주당의 앞날을 걱정하는 광주 민심의 목소리를 전했다.

호남 출신인 한나라당 친박계 이정현 의원은 “민심이란”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광주·전남 여론은 좋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이 문제를 본격 거론하면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설 명절 동안 만나 본 많은 국민은 ▲장사가 너무 안 된다. 힘들다. 패든 별게 해달라는 것 아니다. 먹



민주당 안희정, 박주선, 김진표 최고위원,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 유은혜 수석부대변인(왼쪽부터)이 15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설 민심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살게는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도 어렵지만 앞날은 더 막막하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자식 취업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대강, 세종시 백지화 등으로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민심을 전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말안과 창녕에서 세종시 여론조사를 해보았더니 정부안에 대한 지지가 높

았다”며 세종시 국민투표 안에 대해 “정치권에서 결론을 못 내면 국민이 직접 결론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 지방선거 핫 코너

### 강운태 재래시장 설 민심 탐방

강운태 국회의원은 15일 “설을 맞아 양동시장, 남광주시장, 말바우 시장 등 전통시장을 둘러봤는데, 상인들은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금호와 관련 “노조의 동의서와 상관없이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용섭 “지역경제 살릴 대책 필요”

이용섭 국회의원은 15일 “이번 설에 광주지역 귀성객들이 줄어든 것은 연휴가 짧은 탓도 있지만, 경기침체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은데다 급여마저 줄어든 탓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도 정부는 세종시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동채 “공명선거 다짐 발대식 갖자”

정동채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5일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불·탈법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데 대해 유감”이라며 “검찰과 경찰, 선관위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지방선거는 돈 안 드는 선거, 정책 선거로 깨끗하게 치러야 한다”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일인 19일 광주지역 광역,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이 공명선거 다짐 발대식을 갖자”고 제안했다.



### 전갑길 “중소 임금·근로조건 개선을”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15일 “극심한 실업 속에서도 일부 중소기업은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직자들이 눈높이를 낮추라고 요구하기 전에 중소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구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9인 규모의 평균 월 급여액은 500만 이상 기업의 60% 밖에 되지 않는다”며 “계다가 일단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대기업으로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더 커지는 현실에서 누가 선택 중소기업을 선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 세종시 정국 설 이후 ‘지뢰밭길’ 예고

## 輿 친이-친박 공론화 재격돌 野 국정조사 추진 여론몰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잠시 소강 국면을 나타냈던 정국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갈등은 물론 국정조사를 추진중인 야권과의 대립을 피할 수 없는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 연휴 직전 이명박 대통령의 당내 공방 자체 당부로 잠시 휴지기를 가졌던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와 친박(친박근혜) 진영은 세종시 공론화 문제를 놓고 재격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권 내부 및 여야 간의 대립각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내달 초 다시 한번 정점을 찍은 뒤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전쟁’을 치르면서 최고

조에 달할 전망이다. 물론 한나라당은 그 이전에 세종시 수정안으로의 당론 변경 문제를 놓고 1차 위기를 맞게 될 공산이 크다.

당장 친이 일각에서 세종시 논의를 위한 의총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친이 핵심인 정두언 의원은 “이번 주중에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의총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가 세종시법 국회 제출 뒤 끝장토론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최대한 앞당겨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친이 진영의 입장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유정복 의원은 “수정안 관철을 위한 의총은 당내 분란만 가중시킨다는 점을 잘 알아

야 한다”면서 “수정안을 억지로 관철하려는 무책임한 행동은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계 모임인 ‘여의포럼’은 오는 23일 회동을 갖고 세종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 의원들은 또한, 여의포럼과 별개로 상황변화 발생시 수시로 만나 대책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설 연휴 직후인 16일 세종시 수정집회에서의 균중 동원 의혹 등 세종시 수정안 추진 과정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과 창조한국당 유원일, 무소속 유성연 의원 등 113명은 국정조사요구서를 통해 “세종시 원안 건설을 백지화한 수정안의 입안과 발표, 홍보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공작과 여론 조작, 기업특혜 정경유착 의혹 등이 해소돼야 한다”고 의혹 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정동영, 복당후 보폭 넓히기 ‘정중동’

### 오늘 국립 5·18묘지 참배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복당 후 보폭 넓히기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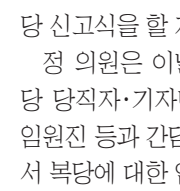
당 주류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정중동 행보지만 당에 조기안착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 의원은 설연휴 마지막날인 15일 기자단에 자택을 개방, 오찬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당분간 조용히 있으려고 한다”며 일단 몸을 낮췄다.

하지만, 정 의원은 설 연휴 직후인 16



일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는 것으로 복당 후 첫 외부활동을 시작한 후 충남과 부산 등 다른 지역도 차례로 돌며 복당 신고식을 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이날 광주를 방문, 광주시장 당직자·기자단·금호타이어 노조 및 임원진 등과 간담회를 갖고 식사를 하면서 복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군복무 중 학자금 이자받지 말라”

### 김효석 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5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따라 대출을 받을 경우 군복무 기간의 이자는 공제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ICL 대출원리금을 산정할 때 대출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



까지의 이자를 합쳐 군복무 기간의 이자는 공제하도록 했다. 현재는 대출자의 군복무 기간도 거치기간에 포함시켜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합격을 원한다면 주소창에 "한빛고시학원"만 쳐보세요**

**가장 많은 수강생! 최다 합격자 배출! 최고의 시설! 최강의 강사진 압도적 1위 한빛!**

**7급 고모의 9급 이턴 3월 2일 시작반** 특별기획특강 **모의고사 9급 문제풀이** 합격

주요 특징: 1. 100% 합격률 2. 100% 만족도 3. 100% 취업률 4. 100% 장학금 지급

» 1등은 이유가 있다!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 통하라! 학원 선택이 합격을 결정한다! «

호남유일 대학생 직장인을 위한 **9급 야간반 개설** 한빛고시학원 최근 3년간 합격자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소방직** (모의고사) 소방특목장기 무시험합격반

**마김유의** 현재수강접수중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061) 234-0234